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CPLB, 중소제조사와 동반성장 확대하는 ‘상생협의체‘ 출범 “동반성장 생태계 넓힐 것”

2025. 8. 19.

19일 서울 송파구 쿠팡 잠실 오피스에서 열린 ‘쿠팡 CPLB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전경수 CPLB대표가 신임 운영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경원 CPLB 상무, 강신영 ㈜놀이터컴퍼니 대표, 이승우 ㈜햇살푸드시스템 대표, 전경수 CPLB 대표, 김근태 ㈜성진켐 대표, 이형주 CPLB 상무, 한윤경 ㈜대한식품 대표.

- **19일 쿠팡 잠실 사옥서 쿠팡 CPLB 상생협의체 출범식 진행**
- **성과·비전 공유, 사회적 책임 실천 등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2025. 08. 19. 서울 -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중소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쿠팡 CPLB 상생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CPLB와 함께하는 중소 제조사는 경기침체와 내수둔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쿠팡을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4년 기준 CPLB 협력사는 630여곳에 달해 19년(160여곳)에 비해 4배 가량 늘었다. 고용인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올초 2만 7000여 명을 기록, 지난해 초 대비 약 4000명이 증가했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CPLB와 함께 PB 상품을 공동 기획·생산해 온 30개 우수 중소 제조사다. 이들 기업은 수도권을 비롯한 경상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 CPLB와 협력사 간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동반성장 비전 성과 공유 및 사회적 책임 실천 등 과제를 함께 수행한다.

협의체는 출범에 앞서 30개 회원사의 투표를 통해 초대 회장단을 선출했다. 초대 회장에는 김근태 ㈜성진켐 대표가, 부회장에는 이승우 ㈜햇살푸드시스템 대표가 선임됐다, 사무국장은 강신영 ㈜놀이터컴퍼니 대표와 한윤경 ㈜대한식품 대표가 공동으로 맡는다.

19일 서울 송파구 쿠팡 잠실 오피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회장단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동반성장을 위한 실

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CPLB는 향후 협의체와 정기적 소통을 통해 제품 기획, 품질관리, 물류, ESG 등 PB 산업 전반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잠재력 있는 지역 중소 제조사를 발굴·육성하고 PB 상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전경수 CPLB 대표는 "PB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은 CPLB와 중소제조사 간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다"며 "CPLB 상생협의체를 통해 PB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협력사들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생태계를 더욱 넓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PLB는 올해 산업통산자원부 주최 '2025 디지털 유통·물류대전' 참가해 30개 중소 협력사의 전용 홍보부스를 지원한 바 있으며, 'CPLB 2025 Win-Win Awards'를 개최해 우수 제조사를 선정하는 등 동반 성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